敦煌本〈捉季布傳文〉研究

俞 泰 筇
（清州大 中文科 講師）

<table>
<thead>
<tr>
<th>&lt;목차&gt;</th>
</tr>
</thead>
<tbody>
<tr>
<td>I. 序言</td>
</tr>
<tr>
<td>II. 取材來源</td>
</tr>
<tr>
<td>III. 內容分析</td>
</tr>
<tr>
<td>1. 概 括</td>
</tr>
<tr>
<td>2. 主題思想</td>
</tr>
<tr>
<td>IV. 人物形象</td>
</tr>
<tr>
<td>1. 季布形象</td>
</tr>
<tr>
<td>2. 劉邦形象</td>
</tr>
<tr>
<td>V. 結 語</td>
</tr>
</tbody>
</table>

I. 序言

敘事詩에 대한 정의는 대체로 다음과 같다:

完全한 故事 줄거리와 인물 이미지를 구비하고 있는 詩歌를 가리킨다. 그것은 詩歌 형식을 이용하여 사건을 묘사하거나, 이미지를 형상화하여 현실을 반영한다. 예를 들면, 史詩・英雄頌歌・敘事詩・詩劇 등이 여기 속한다. 〈古詩為焦仲卿妻作〉은 우리 나라의 저명한 고대 敘事詩이다. (指有較完整的故事情節和人物形象的一類詩歌。它是用詩歌形式來描述事件，塑造形象，以反映現實生活的，如，史詩・英雄頌歌・敘事詩・詩劇都屬於這一類：〈古詩為焦仲卿妻作〉是我國古代著名的敘事詩。)

中國的 詩歌史上 上記한 바의 성격을 구비하고 있는 대표적 敘事詩로는 漢代의 樂府詩歌인 〈焦仲卿妻〉(一民 〈孔雀東南飛〉)와 北朝의 樂府民歌인 〈木蘭詩〉를 들 수 있다. 이것은 唐代 이전 南北 民間文學의 대표적인 5연체 장편 敘事詩이다。

1) 《中國古代文學辭典》 文心出版社, 1988, p. 480.
그러나 20세기 초 敦煌 千佛洞에서 발견된 大唐 중에 季布를 소재로 한 여러편의 운문 형태의 窺本을 통해 唐末 五代간에도 餐事詩가 존재했음을 명백히 입증되었다。③1

《敦煌變文集》에 수록되어 있는 〈捉季布傳文〉(이하 〈傳文〉이라 약칭함)은 모두 640구 4474자의 七言體 詩歌이며, 始終一貫 핀가지 韻만을 借用하고 있다. 이것은 明代 이전의 餐事詩 중에서 가장 편곡이 긴것이다。④1

본래 10여편의 〈傳文〉 窺本 중에서 제일 완전한 형태로 보존되어 있던 것은 P·3697호 窺本이다. P·3697호 窺本은 1926년 王重民이 狄기에서 발전한 것이다. 이 窺본으로 인해 脫字나 채손된 곳이 있는 다른 窃본들은 校勘할 수 있게 되었으며, 〈傳文〉은 바로 P·3697호 窺본을 底本으로 하고 그밖의 窃본들을 참조하여 새로운 편집한 것이다。

〈傳文〉은 敦煌에서 발견된 變文의 전형적인 제재와는 다른 형태이며, 명창 또한 삼아하지만, 근본적으로는 變文을 계승한 즉 變文의 발전된 후기 형태의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⑤1

이 작품은 비록 운문의 형태를 갖고 있으나, 작품에 반영되고 있는 생동


“〈孔雀東南飛〉這首詩是漢代樂府詩歌中最長的飯事詩，全詩約三百五十多句，一千七百多字；〈木蘭詩〉是北朝樂府〈鼓角横吹曲〉中的民歌，全詩六十二句，三百三十字。它和〈孔雀東南飛〉一樣，是我國唐代以前最優美的長篇飯事詩。”

③) 季布를 소재로 한 韻文 窺本은 대략 10여편이 있다.

“p·3697, p.2648, p.3386, p.3197, s.5440, s.2056, s.5439, s.5441, s.1156.”

④) 現在의 《敦煌變文集》은 1957년 王重民, 周一良, 王慶菽 등이 각국에 산재해 있던 窺本 187권을 수집한 뒤, 중복된 것은 제거하고 78권을 정리하여 출간하였다.

⑤) 각 窺본의 原題를 살펴보면 〈傳文〉 또는 〈詠文〉이라 問한 것이 있다. s.5441호는 〈捉季布傳文一卷〉으로, p.3697호는 〈捉季布傳文〉이라고 問을 하였다. 그리고 s.1156호와 p.3386호는 〈大漢三年季布 陳詠文一卷〉이라 問하고, s.2054호는 〈大漢三年楚將季布陳詠文 號贄群臣拔馬收軍詠文〉이라 問하였다. 이로 미루어 窺本의 작자들이 〈傳文〉과 〈詠文〉의 명칭을 구별치 않고 사용하였으니, 故로 〈傳文〉과 〈詠文〉은 동일한 것이다.


적인 묘사. 허구와 상상의 운용. 통속적인 언어 표현 등의 수법을 보면 오히려 소설의 성격에 더 가깝다고 해도 지나치이 없을 것이다. 이처럼 풍부한 문학적 특성을 구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변문 자체의 문학적 가치를 소홀히 평가하였음은 앞으로 재평가 되어야 할 문제라 하겠다.

사실 문학 작품의 가치를 평가할 때 어떤 관점과 방법을 겸치는가 하는 문제는 연구자의 주관적 의지라 할 수 있다. 그러나 "雅"와 "非雅"의 구별은 상대적 개념이라는 견해적 그리고 보편적 인식을 수용한다면, 변문의 민간(통속) 문학적인 특성은 마땅히 재평가 되어야 타당한 것이다.

따라서 필자는 역사주의적 적의 관점에 입각해서, 《傳文》의 문학적 특성과 가치를 고찰하여 문학사적으로 올바른 자리매김을 하는데 그 목표를 두고 있다.

II. 取材 來源

史書中에서 季布 將軍에 관해 기록을 남기고 있는 것은 《史記》의 《季布列傳》과 《漢書》의 《季布傳》이다. 《傳文》은 唐代에 產生된 작품이기는 하지만, 작품의 시대배경에 인용되고 있는 사건은 漢初의 歷史의 사실에서 유래한 것이다. 季布是 漢初의 名將으로 이릉을 면겼던 인물이다. 季布가 項羽를 위해 漢王 劉邦에게 육성을 하여 곤경에 처하게 한 역사적 사실은 최초의 기록이라고 하는 《史記·季布列傳》에 간략히 언급되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史記·季布列傳》의 내용중에서도 《傳文》의 내용과 직접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季布는 楚人이다. 의협심으로 楚에서 명성이 있었다. 項羽에게서 군사를 맡아 여러번 漢王을 끌롭혔다. 項羽가 죽고나서 漢王은 전

8) 역사주의(historicism)란 문학이 쓰여진 시대의 상황과 사상과 문학적 전통과 관습등의 포괄적인 문맥속의 적절한 자리에 되돌려 놓아야만 그의 미와 본질이 밝혀진다는 주장이다.
9) 《史記》에는 욕을 한 사실이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지 않고 단지 "数術漢王"이라고만 하였다. 또한 《漢書》에서도 《史記》의 내용을 그대로 담습하였다.

-142-
사림한 승, 비록 동일, 주호나던 숭무사, 요산이 중에서 풍부공, 풍부공에요

《사기》의 기록은 

《사기》의 기록은 

10) 팔악고문판 《二十五史·사기·송계전》 1986, p. 304.  

11) 팔막의 본격 사회 체제에서 저작된 《사기》가 결국 왕실 귀족과 지주의 

금융을 위한 역사 저작기에도 궁극적 목표는 여전히 본격 통치를 유지하고 보호하는데 있었다고 할 수 있다.  

12) 실로 《사기》의 문학상의 성취는 사학상의 성취처럼 중요한 것이다. 

사람高的 문학적 방법은 이에로서 역사적 표현이 사학적 전환의 효과를 극 

대화 시킨 것이 특징이다. 또한 어떤 인물이 지나고 있는 

의도와 기록에 저자의 흥미를 사상 가치를 표현하였다. 즉 

건초도 작가, 참공, 강인도 작가의 경건을 재화와 같이 

도록에 발해, 역사상의 폭군을 배척하였으며, 사학적 

의원상을 청결함을 하면서 사학의 배경에 대한 가혹한 통치를 폭로하였다.

-143-
이 내용은 보면 앞의 《史記·季布列傳》과 약간의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季布는 단지 朱家의 도움만 받은 것으로 언급돼 있는 반면 朱家の 俠義 행위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묘사를 하고 있다. 이는 司馬遷이 《太史公自序》에서 『 사람을 곤경에서 구해주고, 사람이 고생할 때 구해 주는 것은 仁者の 도리가 아닐가, 밑음을 얻지 않고 말을 배반하지 않는 것은 俠義의 경우도 같다. 그러면 《遊俠列傳第六十四》를 지었다』라고 한 것이 비추어 보면 결코 과장된 기록은 아닐 것이다.

마지막으로 《漢書·季布傳》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을 상고해 보면 《史記》의 내용과 별 차이가 없으나. 《漢書》는 《史記》의 내용을 가감없이 轉載한 것이다. 이후 唐末의 《傳文》이 출현하기 전 까지는 季布를 소재로 한 어떠한 형태의 기록도 찾아 볼 수가 없다.

### Ⅲ. 내용 분석

1. 简概

13)위의 책 《遊俠列傳》 p.347.
14)위의 책 《太史公自序》 p.360: “教人於危振人不聶仁者有乎不既信不信言義者有取焉作遊俠列傳第六十四”
唐末期에 이르러 季布 故事가 장편의 散事詩 형태로 확대 발전된 것은 이 시기의 한 작가에 의해 일시적으로 창작된 것이 아니다. 충분한 故事性을 갖춘 季布의 機智와 영웅단은 漢代 이후 수백 년간 被統治 계층이었던 民間에서 널리 膨炙되고 口誦되었을 것이다. 이은 唐代의 민간 작가가 종합 정리하고, 또 자신의 뒤어난 허구와 상상을 통해 수록을 하여 새로운 재창조한 것이라고 할 수 있었다. 때문에 〈傳文〉은 口伝文學적인 성격을 具備한 기록문학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傳文〉은 史書의 고정적인 관념의 속박을 벗어 나서 생동감이 충만한 내용과 묘사, 그리고 통속적인 문학성을 구비하게 된 것이다.

〈傳文〉의 줄거리는 대략 다음과 같다:

楚와 漢은 오래동안 대치하며 전투를 벌였으나 축복한 승패가 나지 않았다. 당시 楚王 망후의 부하인 季布가 漢王 劉邦에게 유용한 재단을 써서 임시 劉邦의 군대를 파퇴시키어 곤경에 처하게 하였지만, 결국은 階層을 재정비한 劉邦에 의해 楚는 멸망하고 頭領은 탈출하다가 자결한다.

天下를 평정한 劉邦은 季布에게 당한 치욕을 잊지 못하여 상금과 권력을 내걸고 그를 철폐코자 하였다. 시사각각으로 자신에게 위급함이 다가오고 있음을 아는 季布는 노피와 은신에도 한계가 있음을 깨달고, 마침내 옛 친구인 周氏를 은밀히 찾아가 도움을 요청한다. 周氏는 같은 방법으로 유의주도하게 季布를 보호하여 漢王의 범망으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준다.

劉邦은 季布를 철폐하지 못하는 관리들의 무능과 태반함을 절책한 뒤에 재차 朱解를 특사로 북경에 파견하여 더 가혹해진 새로운 포고문을 공포하였다. 이 소식을 접한 周氏는 혼란이산하여 어찌할 바를 몰랐지만, 季布는 새로운 특사가 朱解라는 사실을 전해 듣고 오히려 더 안심하였다. 왜냐하면 季布는 이미 朱解가 어리석고 무능한 사람이라고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季布는 周氏에게 요청하여 스스로 노비로 변장을 하고 그의 노비 형제를 하였다. 그리고 적당한 기회를 틀어 朱解에게 말하도록 당부하였다. 朱解는 영문도 모를 노비로 변장한 季布를 구입하여 洛陽으로 돌아 갔다. 劉邦에게는 季布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거짓 보고를 하였다. 晦然한 朱解는 文武가 겸비하고 성실한 季布를 가혹한 이웃에게 두루 자랑하였 다. 그러나 季布의 연행과 재주가 전혀 노비답지 않았기 때문에 마침내 朱解는 그를 의심하게 된다. 결국 季布는 자신이 劉邦의 원수

15) 周紹良, 白化文 編 《敦煌變文論文錄》下 明文書局, 民國74年, p.544.

-145-
라고 고백을 하였다. 朱解는 翰가 자신의 가족에게 가까 미칠 것을 두려워 했기 때문에 季布를 조정으로 임용하려고 했다. 그러나 季布는 朱解에게 이미 은닉시킨 허를 벗었기 때문에 자신의 멸족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를 하여 翰을 모면한다.

어느날 季布는 홀로 주도면밀한 계획을 세운 뒤에 朱解로 하여금 조정의 중심인 夏侯譔과 澶何 두 사람을 초청하여 주면을 배포하도록 사절하였다. 홍이 무르익는 연회 석상에서 플러브가 헤어질 것보다도 季布는 두 신하의 앞에 없으려 비통한 심정으로 비명을 흘리게 하였다. 季布는 과거 자신이 漢왕에게 욕을 한 행위에 대해서 깊이 반 성하였으며, 자신이 사직될 수 있도록 漢왕에게 상소해 주기를 간절히 부탁하였다.

결국 侯譔이 季布가 일러준 지시에 따라 皇帝에게 상소를 하였다. 皇帝는 모든 백성들이 현상금과 관직에만 헌신해 놓고가 페허가 됐다는 보고를 들고는 마침내 季布의 체포를 중단시켰다. 그러나 이 러한 조치에도 季布는 안심하지 못하고 거듭해서 千金을 하사해줄 것을 요구하였다. 侯譔이 이에 난색을 표시하자 季布는 皇帝의 조 치가 미흡하고, 또 후일 보복당할 것이 두려워 차라리 畢敵변에 투항하여 漢을 귀류하게 될지도 모른다고 경고를 한다. 侯譔이 季布의 이런 태도를 皇帝에게 보고하자 皇帝는 季布의 다시 투결한다 는 것이 두려워 그의 요구대로 千金을 하사하게 된다.

하지만 季布가 입궐하여 皇帝를 배임하려는 순간 皇帝는 또 다시 엽탈의 처목이 상기되어 무사에게 체포를 명하였다. 이에 季布가 皇帝의 진정에 격려하며 후대의 비난거리가 될 것이라고 했지만, 皇帝도 어쩔 수 없이 그를 사면해 주도록 善処를 하고, 太守라는 관직도 제수하였다.

결국 季布는 皇帝의 은총에 감사를 표현한 체 일러 먼저 朱解를 찾 아가 보답하고서 독도양양하며 귀향한다.

이상이 《傳文》의 줄거리인데 앞에 인용한 史書의 내용과 비교해 보면 큰 변화와 극적인 구성이 단연 두드러진다.

특히 史書와 《傳文》에 나오는 인물과 관직의 명칭에는 많은 차이가 있음이 알 수 있다.

첫째, 《史記》와 《漢書》에도 周氏의 이름은 언급이 없는데, 《傳文》에서는 周氏, 周譔, 周院長 이라고 흔용하고 있어 어느것이 그의 실제 이름인지 알 수 없다.

둘째, 《史記》와 《漢書》의 《季布列傳》과 《游俠列傳》에는 朱家の 이름이 없으며, 諸家の 注解에도 전혀 언급이 없다. 《傳文》에서는 朱家の 이름을 解라고 했지만, 이 說도 典籍에서는 발견할 수가 없다. 아마도 작자
가〈游俠列傳〉중의郭解의 이름에서 잘못取하여朱解라고 하였을 것이
다.

셋째,《史記》와《漢書》의〈季布傳〉에서는漢高祖劉邦이季布를赦
면하고郎中이라는 관직을 제수한 것으로 언급하였다. 그러나〈傳文〉에서
는劉邦이太守라는 관직을 제수한 것으로 언급했고,項羽아래서는御史大
夫를 지낸 것으로 언급하였다. 실제로季布가太守가 된 것은孝惠帝・呂太
後時의 일이며,御史大夫라는 버슬을 했다는 기록은史書에서 찾아 볼 수
없다. 아마도 이것은 작자가《史記》나《漢書》의“季布為河東守.孝文
時人有言其賢者, 孝文召欲以爲御史大夫.”라고 한 내용에서牽強附會한 것
이 아닐가 생각된다。

그러나〈傳文〉의 맨 마지막 구절을 보면『이故事는《漢書》에 의거한 것이라, 詞人が 합부로 노래했다고 여기지 마시오』라고 하여典據를
명백히 밝히고 있지만, 실은《漢書》가《史記》의 내용을 그대로 轉載했을
움을 간안할 때, 이〈傳文〉의 작자는《史記》나《漢書》의 내용을 자
세히 읽거나, 認知함이 없이 당시 유행하던 故事에 많은 수식을 가미하였을
뿐이다. 구태여《漢書》에 의거한다는 말은 간혹인 것은 민간에서 유행하
던〈傳文〉의 내용이 오히려史實에 거기음을 강조하기 위한 민간 작자의
의도적인 附會라고 생각된다.

그리고張鎬厚《敦煌文學》에서『詞人이란吟唱과講說을 행하던 민
간의 藝人이다』라고 하였다. 故로〈傳文〉은唐代에 이미 전문적으로
説唱藝術에 종사하던 민간 藝人, 즉 詞人が吟唱 형식을 이용해 대중 앞
에서 演出하던 詩歌임이 분명하다。

2. 主題 思想

16) 謝海平《講史性之變文研究》 臺北:政大碩士論文, p.49 참조.
17) 王重民《敦煌遺書論文集》 臺北:明文書局,民國74年, p.229 참조.
18)《敦煌變文》 中文出版社, 日本: 1978, p.71: “具說漢書修製了, 莫道詞
人唱不貴”
帶講說的藝人”
20) 李明偉〈提季布傳文藝術簡論〉 《敦煌學輯刊》 1985, 第一期, p.69.
21) 魏廷亮 編, 앞의 책, p.306: “詞文, 是供歌唱演出的民間長篇說事詩”
작품의 주제는 작품에 나타나 있는 \textit{意味}이며 작가의 중심 사상이요, 소재를 해석해 나간 통일된 힘이라고 \textit{定義}를 내릴 수 있을 것이다.\footnote{음병노외 3인, 《문학개론》 문학아카데미, 1990, p. 173.}

《史記》와 《漢書》의 \textit{季布列傳}은 역사적 사실을 간단히 서술하면서 오직 \textit{劉邦}의 \textit{意恩}으로 \textit{季布}가 사면되었음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textit{傳文}은 역사적인 속성과 제약을 과감히 탈피하고, 새로운 내용과 주제를 갖춘 작품으로 \textit{換骨奪胎} 하였다. 즉 이 \textit{故事}는 수백년 동안 민간에서 퍼졌고, \textit{口}으로서 자연스럽게 민간의 의식과 정서를 반영하였을 뿐더러, \textit{唐末期}의 \textit{傳文} 작가 또한 \textit{安史之亂} 이후의 혼돈한 시대적 사회적 상황속에서 \textit{を通문}하는 서북 변경 \textit{地}의 민간의 모습과 그들의 이상을 \textit{季布}라는 인물에 기독하여 반영하였던 것이다. 때문에 작자는 \textit{劉邦}의 \textit{野態}로 인해 \textit{通説}하던 민간의 \textit{譚}를 동정하여 \textit{金 siècle 동}하던 \textit{劉邦}을 사정 없이 \textit{追上시키고, 敗将}이며 \textit{약자}로 전락한 \textit{季布}에게 오히려 \textit{초월적인 聰謀}와 \textit{勇気}를 부여하였던 것이다. 이런 \textit{譚}를 통해 작자는 이 작품의 주제 사상은 \textit{優화}하고 \textit{적남라하게} 묘사하고 있다.

본문 중에서 \textit{季布}는 \textit{劉邦}을 향하여 \textit{가마귀가 어찌 봉황의 것을 먹을 수 있으며, 자라는 여덟} \textit{용}의 \textit{비늘}을 부칠 수 있을까? 하늘이 \textit{保佑}하지 않아 백전백패하여, 사졸들의 삼분의 \textit{가} 피해를 입었다.\footnote{《敦煌譚文》 p. 52 "鸚鵡如何披鳳翼? 龍龜爭敢掛龍麟! 百戰百輸天不佑, 士卒三分敗二分."}라고 하였고, \textit{오월의 음력}은 \textit{황제}를 상징하는 천자라 할 수 있었다. \textit{故}, \textit{가마귀가 어찌 봉황의 것을 먹을 수 있으며}는 많은 \textit{劉邦}의 \textit{勇気}를 이용하여 \textit{권세를 잡으려는 것을 비난한 것이요, "자라가 여덟} \textit{용}의 \textit{비늘}을 부칠 수 있을까?"는 \textit{여덟 민간의 봉건 군주에 대한 멸시라고 할 수 있다.}

또 \textit{季布}의 \textit{智謀}로써 \textit{劉邦}의 \textit{복수심}을 극복하고 상급과 관직을 하사받은 뒤 『발 동자름 두드리며 노래하고 귀창할때, 채찍을 훼들고 기뻐하며 고통과 작별하였다』\footnote{위의 책, p. 71. "敲鐘驅歌歸本去，搖鞭喜得脫風塵."}로 묘사하였다. 이는 피암박자의 위치에 있던 \textit{季布}가 \textit{通説 infinitely}} 과 \textit{極刑의 謡中에서 승리와 해방을 획득했음을 반영한 것이며, 동시에 오랜 \textit{戰亂}으로 인해 \textit{通説}하던 민간의 간결한 \textit{희망이 \textit{季布}라는 인물을 통해 부여된 것이다.}

---
결론적으로 《傳文》의 주제 사상은 절대 권력자인 봉건 군왕의 무절제한
私欲을 季布의 智謀를 통해 여지없이 고발하고, 또한 安史의 乱, 이후 쌓여들
한 사회적 상황에서 고통을 당하면서, 또 평화를 갈망하는 민간의 영원이
季布를 통해 구현된 것이라 할 수 있다.

IV. 人物 形象

崔載瑞는 《서사시 로만스 소설》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우리가 敘事詩에서 무엇보다도 부리워할 것은, 인물의 개인적 가
치가 완전히 보전되어 있다는 점과, 또 개인과 사회 또는 인물과
시대가, 같은 감정과 같은 신념에 통일되어 있다는 점이다.25)

다시 말해 서사시가 인물 중심이기는 하되 한 개인성보다는 민족 다수의
통일된 감정과 정서에 의하여 창작된 것임을 알 수 있다.

《傳文》은 오랜 시대에 걸쳐 민간에서 口語되어서 敘事로 歌唱하기에 편리
한 敘事詩 형태로 작품화하여 연출하였기 때문에 민간 문학의 특성을 보존
하고 있다고 한다.

또로 작품중의 인물 형상도 史書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수적인 이미지를
탈피하여, 민간의 공통적이며 객관적인 예찬과 고통을 반영하였고, 또 그들
의 사회 생활과 사상을 묘사하였던 것이다. 즉 대중의 통일된 감정과 정서
에 의해 《傳文》의 인물 형상이 부각되었다고 할 수 있겠다.

이 작품속에 등장하는 인물은 頥羽, 劉邦, 季布, 周氏, 朱解, 夏侯瓊, 蕭何 등의
7인이다. 이 종에서도 시중일관 季布와 劉邦을 중점적으로 대립
시켜 묘사했기 때문에 두사람의 인물 形象화는 대단히 성공적이라고 할 수

25) 《문학개론》, p.79.
26) 段寶林은 《中國民間文學概要》에서 민간 문학의 특징을 나가지로 구분
하고 있다. 즉 口頭性, 流傳變異性, 傳統性, 集體性이 그것이다. 밀자는
여기에 時事性을 추가하였는데, 바로 이런 다섯가지를 구비하면 어떤작
품이든지 항상 時事를 초월하여 꾸밈없이 새로운 形象으로 재창조되어
耽美되고 口傳될 수 있는 것이다.

-149-
1. 季布 形象

〈傳文〉의 작자는 季布를 평면적 인물로 形象化 시켜서 때문에 작품속에서 주도적 역할을 하도록 설정하였다. 때문에 備見 長官의 처치가 되어 주 격 당하는 季布에 대해 최대의 동정과 지지를 부여하였으며, 또한 그에게 조협적인 智謀와 용감한 품덕을 부여하여, 고틀 역경과 난관을 극복하는 영웅 형상으로 묘사한 것이다. 그리고 故事가 점차 발전하면서 季布의 運命과 적절히 부합하도록 하고, 파란이 일게 하여 대중의 心斂을 올리였다.

특히 작자는 季布의 智謀를 묘사하면서 평범한 서술을 지양하고, 특이하면서 전형적인 축거리를 집중적으로 안배하였다.

季布는 項羽가 劉邦에게 욕을 하도록 허용하지 신랄하게 꾸짖는다:

劉邦아! 네는 徐州 豈難 사람이라 아닌가.
모친은 길쌈을 하면서 시골에 살았고,
부친은 방목을 하면서 살았다네.
나는 일찍가 泗水에서 亭長을 지냈지만,
오랫동안 저자에게 舟주림을 면치 못하였다.
사나라에서 살다가 난리가 난 날 후,
자칭 왕이라 하니 정말 가소롭도다.
까마귀가 어찌 봉황의 것을 낼 수 있으며,
자라가 어찌 용의 비늘을 입을 수 있는가?
하늘도 保佑하지 않아 백전백패 하여,
병사와 심부의 이가 계별당하였네.
어찌 오랫동로 자승자박한 뒤,
우리 왕에게 투항하여 寬恩을 바리지 않는가?
만일 夢想에 빠져 대항한다면,
제포하여 길고 방면치 않음을 것이다.

公是徐州豊縣人.
母解難居村墅,
夫能牧放住鄉村.
公曾泗水為亭長,
久於鄉村則受蠶貧.
因接棄家離亂後,
自號為王假僞真.
鴉鳥如何披鳳翼?
龍蛇爭飲掛龍鱗.
百戰百輸天不佑,
士卒三分相二分.
何不草繩自縛,
歸降我主乞寬恩.
更若執迷誅閻敵,
活捉生擒放沒因。[n]

이 내용은 史書의 간단한 史實에 근거하여 작자가 구체적으로 확대 부연한 것이다. 작자는 季布와 項羽를 극히 대조적인 인물 形象으로 즉 영웅과 소인배로 재창조 하였다. 바로 이와 같은 묘사는 季布의 智謀를 생동감 있게 27)《敦煌變文》 p. 52.
도록 표현해 냈 것으로, 故事가 발단하면서 곧 긴장된 분위기를 조성케 하려는 작자의 치밀한 예술적 장조 능력을 발견해 해준다.

다음, 季布는 畫王의 특사인 朱解가 자신을 체포하려고 파견했다는 周氏의 말을 들고서 기가 막힌 계책을 펼쳐 놓게 된다:

만일 다른 사람이라면 목숨이 위태롭겠지만, 朱解같은 이라면 걱정할 것 없다.
물건대 그는 무능하면서 자분한 복을 누리나.
心思는 거칠고 文武도 형편없다.
비록 상금이 천금이 되든지,
또는 상금이 萬金이 되든지 간에.
황제가 위엄있고 어מינ이 비록 염정하여.
먼지 날리고 홀을 파헤친들 두손 소용이.
이미 季布가 파견되어 체포교자 하지만.
계책이 있어서 놀이 날아 날 수 있다.
周氏는 그 말을 듣고 크게 놀랐으며.
마치 헛른 말을 하고 황제를 조롱하는 것 같았다.

사실을 파견하여 체포교자 하는 데.
형제시 어찌 달아 날 수 있던 말이오.
季布가 대답한다. 지금 계책이 있으니.
그대는 내가 달아 날 수 있음을 보시오.
머리를 깎고 짧은 베옷을 입은 뒤.
당신의 노비 행세를 하겠오.
다만 연주의 莊園의 친한인으로.
그대를 따라 출입이 잡다고만 하시오.
당신은 朱解가 돌아가기를 기다리다가.
노예 시장에서 저를 그에게 파심시오.
朱解가 흔연 처를 사려고 한다면.
값을 풍성하게 연청히지는 마시오.
());//나를 사서 노비로 삼는다면.
힘든 일도 사양치 않고 열심히 일하겠오.
정녕 황제를 만들 수만 있다면.
마치 병든 하이 창공을 나는 격이라오.

若是別人憂性命.
朱解之徒何是倫.
見論無能虛受福.
心粗宏武又虧文.
直饒墜却千金賞.
遮莫高皇萬鉤鉤.
皇威破敵雖嚴訊.
播塵揚土也無因.
既交朱解來尋捉.
有計臘衣出得身.
周氏聞言心大怪.
出語如風弄國君.

本來發使交尋捉.
兄且如何出得身?
季布乃言今有計.
弟但看僕出這身.
元髮剪頭披短褐.
假作家生一賤人.
但道兗州莊上客.
隨君出入往來頻.
待伊朱解返歸日.
口馬行頭僕僕身.
朱解忽然來買口.
商量莫共苦爭論.
忽然買僕身將去.
攀轡執帽不辭辛.
天饒得見高皇面.
由如病鶴再凌雲。

 이것은 史書에서 周氏가 외를 씨 季布를 朱家에게 맡았다고 한 내용에 근거하여 변화하고 수식을 첨가한 것이다. 그러나 《傳文》증에서는 周氏가

28)위의 책, p.59-60.
友情에도 군무를 교묘히 숨겨 두었으며, 또 군무는 스스로 지혜를 써서
周씨에게 자신을 거리킨 유인계에게 노비로 만들도록 하였다. 이러한 변화로
周氏의 태도가 평화롭게 변한 것을 토대로 하였으며, 李布의 지혜로움을 더욱 강조한
것이다.
또한 李布는 固有의 비범한 행동에 자신의 신분이 朱解에게 탄로되자
오하려 그를 위로하며 以實直告 한다. 그리고 蕭何.夏侯緯에게 도움을 요청
하기에 이른다:

놀라거나 두려워 하지 마시오,
대부에게 전달하면 편안할 수 있다.
지금 전하하시니 나를 체포하자 하는데,
체포하면 관직과 금 백만을 얻을 수 있다.
그대가 나를 조정으로 압송한다면,
물러없이 지향하고 풍위도 새로워질
것이란!  
朱解는 신중히 못하고 遠見이 없기에 때문에,
부하를 시켜 그를 압송하여 하였다.
李布는 말을 하고 또 옮으면서:
대부여 몰시 쉬였구요!
순명하고 은혜받는 일도 허리가 못하고,
오직 皇帝의 엄격한 勤務만 보시겠군요.
나를 체포하면 왕의 관직을 하사받겠지만,
나를 숨겨주는 집안은 멸족을 당할 것이요.
그대의 집에서 한달을 숨어 지냈으나,
나를 잡아서라면 우선 蕭族을 근심해야
한다!

李布가 절을 하면서 말한다:
相公 皇帝께 上奏해 보시오!
일과가 朱解의 집에 묻었을때.
東齊의 백성이 곤궁하다는 것을 들었다고
하시오.
州縣의 관리들이 우려하는 바는,
좋은 논과 밭이 폐해진 것이라.
李布를 사로잡아 상급을 타기 위해서,
모든 집들이 농사를 포기했다.
陛下께서 용서하고 勤務을 회수한 후,
상급을 폐지한다면 백성들이 감동할

不用驚狂心草草.
大夫定意但安身.
見今天下搜尋僕.
捉得封官金百斤.
君但送僕親門下.
必得加官品位新!

朱解心粗無遠見.
擁呼左右送他身.
季布出言而便嚇.
大夫大似醉昏昏包.
順命受恩無爵度.
合見高皇嚴勤文.
捉僕之人官與戶.
藏僕之家斬六親.
況在君家藏一月.
送僕先憂自滅門!
것이요.

사과에서는 본래 裏解가 季布의 신분을 알아 차리고 나서, 스스로 夏侯瑾을 찾아가 漢王이 季布의 죄를 사면해 주도록 도움을 청하였다고 기록하고 있다.

그러나 《傳文》중에서 裏解는 季布를 알고난 후에 오히려 공로를 세우고자 하였으며, 季布는 智謀을 자내어 裏解로 하여금 宰相인 蕭何, 夏侯瑾을 연회에 초대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연회가 한창일때 季布는 스스로 왼쪽에서 출현하여 상세하고 솔직하게 자신의 實情을 진술하였으며, 또 蕭何와 夏侯瑾에게 자신이 사면받을 수 있게 上奏해 주도록 권請하는 내용으로 변화하였다.

이 작품의 정점 부분에 이르러 결국 季布는 자신의 智謀의 연변으로써 漢王의 私憤을 불식하고 諫免을 획득하여 승리하게 된다:

皇帝가 珠簾을 걷고 季布를 바라보니. 皇帝篤篤看季布.
약달하던 것이 떠올라 화가 치밀었네. 思量嘛陣忽然嘆.
마침내 武士에게 체포하도록 명령한다: 逐令武士齊搗捉.
“내놈을 살려 두지 않겠다!” 與朕剏煞不用存!
그를 체포하여 문밖에 대령했을 때에, 臨至捉到蕭營外.
季布의 외척이 皇帝 귀에 들렸다네: 季布高聲殿上聞.
英明한 天子께서 도와주신다 해놓고, 聖明天子徧匡佐.
명령을 번복함은 무슨 까닭이요! 讓語君王何是論!
분명히 천금을 허사한다 하시고서, 分明出動千金貿.
문앞에서 체포하여 죽이며 하는 구로, 賺到朝門卻殺臣.
죄로 인해 죽는 것은 명분이 있으나, 臣罪受誅雖本分.
陛下는 후세의 비난을 어찌 감당하였요! 陛下爭端後世聞!
皇帝는 동정하면서 이 말을 듣고서, 皇帝聖時聞此語.
노여움을 풀고 곧 그를 석방하였네. 蓠嘆作喜而交存。®

이 내용은 사과에서 볼 수 없는 전혀 새로운 내용을 작가가 증가시킨 부분이다. 특히 季布가 諫見하러 왔을때 劉邦이 감정을 자제하지 못하고 체포코자 했던 내용과 지혜로운 연변으로 劉邦의 愤氣를 진정케 했다는 내용의

29)위의 책, p. 64-67.
30)위의 책, p. 70.
첫기는 대중의 정서와 감정에 영향하고자 하는 작가의 의도로 달라지 않은 것이다. 때문에 작가는 季布의 智謀와 용기, 그리고 臨機應変을 여러가지 강조하였으며, 劉邦은 私欲에 치우친 절대 권력자로 변화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작가는 季布의 형상이 단순히 智謀가 많다는 표면적 구조에만 무르지 않게 하기 위해 朱解가 그를 사서 노비로 삼았다고 한 묘사의 전후에 특별히 季布의 多才多能을 강조하는 표현을 삽입하였다.

안마와 맛사지에 뛰어나고, 
옷도 잘 정돈하여 향기나게 하며, 
전송하는 인사도 알고 글자도 식별하고, 
공사 중 수행하여 학교에도 간다네.

만일 말을 다가하면 임석할 것인지, 
일끼미 농장에서 부려기 때문이다.

노비가 즐이를 먹고 몸을 움직이니, 
글자 모양이 아주 생동적이었다네.

이름 짜는 방황하는 모습같고, 
년월 짜는 카마귀가 없은 모습일세.

상하는 몽을 뿌듯 그것 취하 여고, 
행간의 草書 行書는 비단을 벌젖듯.

말을 타고서 막대기를 잡고, 
 Explicit하면 대적할 자가 없고, 
말위에서 창걸을 취두르고, 
활을 쫓아도 단한 자가 없다네.

二馬를 달리며 고배를 잡고, 
한발로 타니 성찰 귀신 같도다.

제작 휘두르며 달리는 모습 기쁨있고, 
동자를 차는 모습도 아주 민첩하다네.

남북으로 전회하는 것이 번개같고, 
동서로 달리는 것은 바람같다네.

이와같이 작자는 季布에게 다양하고 풍부한 재능과 재능을 부여하여 작품의 내면적인 구조를 형성하였으며, 또 이로 인해 季布의 形象을 입체감이 충만한 모습으로 재창조 하였다.

이상과 같이 季布 人物 形象에 투영된 내용은 모두 기지와 용기, 그리고

31위의 책, pp.61-63
2. 劉邦 形象

敦煌 俗文學은 대부분 일상 생활중에서 태동한 통속 작품이기 때문에 당
시 민간의 생활 환경과 사상 배경을 사실대로 반영하였다. 통속 작품은 민
간의 생활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황제의 공덕을 노래하거나 찬미하는데
역할을 두지 않는다. 단지 개인의 에완과 고통을 표출하는 것으로 만족하
고, 그리고 민간의 신성을 토로하고 사회 생활을 반영하게 된다。

때문에 《傳文》에서 묘사한 劉邦의 形象도 史書의 전통적이며 보수적인
전형에서 탈피하여 전혀 다른 성격으로 창조되었다.

劉邦은 季布에 의해 육을 먹고 패주한 후, 수치스럽고 문한 나머지 성을
내며 군신들에게 驚號를 하고, 또 계속 切齒腐心하면서 복수에 골몰한다.

漢王은 보고를 듣고 怒氣衝天하면서,
책상을 치고 미간을 치꾸며 분노한다:
漢나라를 보조하지 못하는 천당들이,
정통인계 하면서 과인을 허방하였다.
경날 과인에게 제징이 없다면,
공연히 만사를 거טור치 않겠다:
만일 하늘이 도와 준다면 천하를 평정한 후,
楚의 장수가 투항해도 살려줄 것이다.
그러나 季布와 鏈離味를 체포한다면,
즉시 불과 기름으로 지켜 버릴 것이다.
그대는 과인과 함께 사실을 기억하고,

이름을 기억하여 소홀함이 없게 하자.
망일 연세든지 남면하여 하사가 된다면,
사로잡아 부녀한테 바람에 날리겠다.

말년도 승자함이 더욱 절실해 지면,
문을 열고 받을 건은 대신에게 하문한다.
주름을 체포를 각추에 파견하였으나,
여지 오랜 연이 지나도록 소식이 없는가?
이것은 관리들의 태만함 때문에.
지금까지 역적이 은신한 것이다.
마침내 사자를 파견하여 다시 명령하고,
법규를 더 엄격하도록 개정하였다네.
져스로 벽을 칠한뒤 주름의 모습을
그렇는데,
채색으로 그린 것은 더 생동감이 넘친다.
은신됨 만한 두 집을 연좌게 해서,
이로 감시하고 신교록을 하였네.
모든 집의 이중 천정과 벽을 부수고,
다음 풍을 뒤엿어 바람에 남았으며.
산과 강을 수색하고 동굴에 연기를
피웠으며.
초록이나 산림도 수색하고 소문은
막익대네.
용모와 이름을 대조하여 민일 체포한다만.
상급과 허물을 하였다.
승려와 고용을 하였다.

그러나 후에 夏侯濤은 주름의 지시에 따라서 민일 주름을 승임하지 않게
되면 夷敵에 향향하여 漢을 침범할지라도 모른다고 刘邦에게 謀언하였다. 이
보고를 듣고 단 刘邦은 마음속으로 두려움이 일어 결국 주름이 요구한 상급
까지 하사하여 승임을 허락하였고, 정작 주름이 일관하려고 하자 다시 이전
의 치욕을 상기하며 부수하고자 한다:

나는 天下를 업기 위해 승임을 해주여.
돌에는 운동 상처 부인이 빈일째.
금속에서 楚王을 보고도 전율하였는데.

_156_
여지 시부와 싸우는 것을 생각하였으나, 그대의 말에 따라 그같이 소환하겠으니, 산하의 뿔화를 하고 광혼을 세워야 하오.

--------------------------
시부를 조정적으로 인도하여 가자, 관리가 틀을 베타토록 한다.  
황제가 부합을 거고 시부를 처다보니, 악당하던 것이 떠올라 화가 치밀었네.  
마침내 수사에게 체포토록 명령한다:  

“네 눈을 살려 두지 않겠다!”

이상에서 볼 수 있듯이 《傳文》에서 漢 高祖 劉邦에 대한 평가는 새로운 극면을 열고, 특별한 풍격을 구비토록 하였으며, 기존의 전통에 반대하고, 창의성과 생기발랄함 그리고 대담한 성격을 구비토록 인상하였다. 때문에 史書에서 전형적인 天子의 品性과 行為를 구비한 인물로 묘사했던 劉邦을 성격이 교활한 인물로 形象화 시켰으며, 특히 시부에 대한 劉邦의 态도 묘사에서도 私利私欲에만 집착하여 復讐에 골몰하는 잔인한 성격을 갖춘 暴君으로 창조하였다.

작자는 의도적으로 劉邦의 전형성을 추구하기 위해 상당한 편 중심의 의미와 과장 수법을 이용한 상세한 묘사를 통해 시부와 서로 대비되도록 인물의 성격을 형상화시켰던 것이다.

V. 結語

어떤 형태의 문학 작품이 발생하든 반드시 當代의 시대적 배경과 사회적 환경과는 불가분의 관계를 맺기 마련이다. 무엇한 시대의 풍조 또는 대중의 审美 态도와 예술 理念, 그리고 의식 형성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漢代와 唐代의 盛世時代에 敦煌은 중국 서부의 대문으로써 실크로드를 통한 中外文化 교류와 東西 교통의 관문 역할을 하였으며, 또한 불교가 중앙아시아를 거쳐 敦煌에 들어온 뒤, 중국의 내륙으로 전파되었으니 실로 佛
敦煌地라고 할 수 있다. 때문에 당시의敦煌은 국제적인 무역 도시로서 정치·경제·예술·문화· 종교의 황금시기를 구가하였던 것이다. 이와같은敦煌의 성대한 발전에 가장 큰 기여를 한 사람들은 중국 내지로 부터의 민족과 전통에 파견된 병졸들이었다。

그러나唐中葉의安史之亂은唐王朝의 통치기반을 뒤흔들어 정착 국력이 소멸하였으며, 当代의 정치·경제·군사·문화 등의 사회 제반면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쳤다. 특히 서쪽 변경지대의回鶻·吐蕃등의 이민족들은 수시로 중국 내지를 침략하여敦煌은 제일 먼저 공격을 받고 동란상태에 빠졌으며, 결국 장기간西夏에게 점령당하였다.

敦煌을 중심으로 하는 서북지역에서 발생한〈傳文〉은 바로安史의亂 이후의 혼란한 시대적 배경과 사회적 환경하에서 탄생하였다. 당시의 피압박인민들은 오랫동안 민간에서 흔적으로 당연한 과정을 이어가던季布 故事를 이용하여 자신들의 처한상태와 정서를 반영하였다. 또한〈傳文〉의 작자는 인민들의 소망에 근거하여 봉건군왕의 무절제한 야욕을 고발하였으며, 또 평화를 기원하는 인민들의 정서를季布을 통해 구현하고자 했던 것이다.

따라서〈傳文〉에는敦煌지역 인민들의 삶과 역사와 문화가 총체적으로 투영되어 있기 때문에 오히려史書의 기록보다도 더욱 진증하고 구체적인 수가 있다. 고로 그것에 대한 올바른 평가는 그것이 창작되어진 시대적·사회적 배경과 그들의 삶에 대한 객관적 인식이든 불가능한 것이다.

상기한 작품의 분석을 통해 고찰해 보았듯이〈傳文〉은 歷史故事情報에서 取材를 하여 문학적으로 흥상히한 작품이다. 그러나 민간 작자는既存史書의 보수적인 관념과 제약을 가감없이 탈피하여季布와 劉邦을 서로 대비하는 인물로 형상화시키는데 치중하였다. 즉史書中의君臣異論 하던皇帝 劉邦에季布에 의해 회통당하는 대상으로 맞아서게, 정반대로敗戰將軍인季布에 대해서는 무한한 동정과 지지를 보내고, 또 초절적인智謀와 용기를
부여하여 온갖 단란에도 결복하지 않는 영웅 형상으로 묘사하였다. 이것은 피압박 상태에 처해 있던 서북지역의 인민들이 악자인 펄부를 동정하면서 한편으로는 자신들의 저항 의식과 정서를 표현하고자 하는 민간성의 자연스러운 표출인 것이다. 맥심 고리키는 "아르바우 매우 완벽한 영웅 형상은 민간의 창작이나, 노동자의 입체 창작에 의해 창조되는 것이다."라고 하였는데, 이는 바로 〈傳文〉 중의 인물形势를 통해서 명백하게 입증된다고 할 수 있었다.

그리고 〈傳文〉은 묘사 수법에 있어서 진실한 감정과 생동적인 표현에 치중하였으며, 언어는 우아함이 없는俗語와 口語까지도 자유롭게 구사하였다. 또한 〈傳文〉은 허구와 상상을 이용한 상세한 줄거리의 첨가와 웹대하고도 극적인 구성 요소를 두루 결합하였다. 이러한 점이 이 작품의 고유한 문학적 특성인데, 文辭가 다소 거칠고 生硬한 것을 제외한다면 정통 문학에 비해 손색이 없다고 할 수 있었다. 더욱이 〈傳文〉은 視唱할 수 있는 七言體의 敘事詩이기 때문에 오락성과 음악성도 구비하여 대중의 창작에도 잘 부합하였으며, 후대 통문학의 발달에도 영향을 끼쳤음을 것이다.

그러나 既存의 중국문화 연구가 文人 - 士大夫 중심의 문학에 지나지게 편중되었기 때문에 민간의 통속문학이 忽待받아 왔음은 周知의 사실이다. 따라서 上記한 〈傳文〉의 문학적 특성을 통하여 고참해 보았듯이 통속문학 작품은 當代의 사회와 문학발전 연구에 있어서 필수 불가결한 자료라고 할 수 있다.

〈参考文獻〉

1. 《敦煌文文》 京都中文出版社 1978.
2. 《敦煌文文》 世界書局 民國 69.

37) 段寶林 《中國民間文學概要》 北大出版社 1985, p. 36 제인용: "在藝術上十分完美的英雄型是民間創作，勞動人民的口頭創作所創造的．"
38) 작품중에는 唐代의 俗語와 早期 白話의 흔적이 있다. 俗語: 忽然(唐代俗語 종의 특수 쓰법으로써 '만일' '가령'의 의미로 쓰임, =如果, 假使), 商量(역시 唐代의 語어로써 '홍청하다'의미로 쓰임, 討價換價)早白: 巨耐(참을 수 없다. 豈有此理), 爭那(거지하라, =爭耐), 非但 (=不但)．
3. 《敦煌文學》 張鉉厚．上海古籍出版社 1980．
4. 《敦煌文獻》 顏廷亮．甘肅人民出版社 1989．
5. 《敦煌文獻通論》 王慶餘．吉林大學出版社 1987．
6. 《敦煌遺書文獻》 王有三．明文書局 1985．
7. 《敦煌文學作品選》 周紹良．宏業書局 1988．
8. 《敦煌變文話本研究》 李鴻．遼寧大學出版社 1988．
9. 《敦煌俗文學研究》 林聰明．東吳大學 民國73年．
10. 《敦煌變文論文錄》 周紹良．白化文．明文書局 1985．
11. 《敦煌變文》 羅宗智 時報文化出版事業有限公司 1983．
12. 《敦煌古籍校錄》 王重民．木鐸出版社 1981．
13. 《敦煌變文論集》 潘重規．石門圖書公司 1981．
14. 《唐代文學與佛教》 孫昌武．陝西人民出版社 1985．
15. 《敦煌文學彙考》 鄧楚．上海古籍出版社 1991．
16. 《敦煌變文集校譯》 郭在始．岳麓書社 1990．
17. 《簡明中國文學史》 陈玉剛．陝西人民出版社 1985．
18. 《中國文學發展史》 中華書局 1983．
19. 《中國古代文學辭典》 賈傳堂．3人．文心出版社 1988．
20. 《講義性之變文研究》 謝瑞平．政大碩士論文
21. 《敦煌變文述論》 黃鎮京．商務印書館 民國 63．
22. 《二十五史》 上海古籍出版社．
23. 《中國全史》 伯賢．
24. 《說話文學概說》 張德順．二友出版社 1989．
25. 《佛教文學入門》 韓國佛教文化學會 1991．
26. 《入唐求法巡禮行記》 圓仁．日本佛書刊行會 大正4年．
27. 《捉襟布傳文藝術簡論》 李明偉．《敦煌學輯刊》 第一期 1985．